

黑川紀章의 建築概念과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oncepts an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Kisho Kurokawa's Works

이 일 형*

Lee, Yil-Hyung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Kisho Kurokawa's architectural concepts and expressions that are comprised of various and complex theories system for Korean's globalization of architecture. Kurokawa's architectural concepts are composed by Metabolism, Metamorphosis and Symbiosis. And intermediate zone, ambiguity, multivalence are theories that work as media in changing process levels to three main concepts and these are used as media of Metamorphosis which embody Symbiosis. Metabolism include concepts of Metamorphosis and Symbiosis. Symbiosis is comprise of concepts of Metabolism and Metamorphosis, and is a ultimate goal of these three main concepts. Metamorphosis works as a medium in changing process levels from Metabolism to Symbiosis. The architectural expressions are embodied according to these main three concepts and theories of media in changing process levels. And these architectural expressions are analyzed by three elements as follows: form, material & color, structure & technique.

주제어 : 일본현대건축, 키쇼 쿠로가와와 건축개념과 표현특성, 메타볼리즘, 메타몰포시스, 심바이오시스

Keywords: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Kisho Kurokawa's architectural concepts an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Metabolism, Metamorphosis, Symbiosi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본은 반세기가 넘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非)서구권의 유일한 선진국이자,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성으로 서구권 국가들에게 호감을 주어왔다. 그러나 패전(敗戰) 이후에도 침략과 수탈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군국주의의 망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사회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문화·예술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있다. 일본은 1979년에 시작된 건축분야의 노벨상적인 '프리즈커 상(Pritzker Prize)'²⁾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

했고, 1907년에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미국건축가협회(AIA) '골드메달(Gold Medal)' 수상자도 3명이나 배출했다. 수상자 없는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권을 통틀어도 가히 압도적이다.

작년 세계 최대의 건축축제 제 14회 베니스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 건축전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한국관이 처음 수상한 계기로 우리 건축계는 '한국성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 중에서도 주요한 국제현상설계에서 많이 당선되었고, 전 세계에 지어진 그의 작품으로 명성이 드높은 일본의 키쇼 쿠로가와(黑川紀章: 1934~2007)는 폭넓고 다양해서 복잡한 이론체계지만, '일본성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일관되게 자신의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2) Pritzker Architecture Prize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賞이다. 하얏트호텔 월드체인을 소유한 하얏트제

단 前회장인 J.A. & Cindy Pritzker 夫婦가 1979년에 제정하였다. 1979년 美國의 Philip Johnson을 시작으로 2014년 日本의 Shigeru Ban에 이르기까지 매년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4년 현재까지 한국인 수상자는 없다.

건축개념과 표현을 발전시키고 견지해온 몇 안 되는 건축가다. 따라서 쿠로가와 건축의 개념과 표현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한국 건축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쿠로가와와 서적을 비롯한 관련 자료 대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고찰하고, 그의 많은 작품 중 실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건축개념과 표현에 대해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2장에서는 쿠로가와 건축개념의 배경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해한 건축개념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3장에서는 실현된 작품 중 쿠로가와가 작품집에서 직접 선별한 기준에 따라 개념별로 분류된 대표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건축표현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4장의 결론에서는 쿠로가와와 건축개념과 표현특성을 비평적인 시각에서 종합하였다.

2. 키쇼 쿠로가와 건축개념의 특성

2-1. 키쇼 쿠로가와 건축개념의 배경

(1) 건축적 환경과 불교의 영향: 1934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쿠로가와와는 부친(父親)이 건축가였던 까닭에, 자연스럽게 건축에 접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교토(京都)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자키(磯崎新)와 함께 도쿄(東京)대학 대학원에서 당시 일본 건축계의 중심인물이었던 단케(丹下健三)³⁾에게 수학했다. 1961년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몇 해 동안 일이 없어 이론적인 저술이나 탁상계획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는 하나,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건축에 대한 이론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을 것이다.⁴⁾

3) 丹下健三(1913~2005)는 戰後에 민족주의·일본전통·근대건축과의 관계라는 과도기의 건축가들이 초월해야 될 모순과 맞부딪치면서 전통계승의 노력을 하였다. '히로시마(廣島)평화회관, 1952'에서는 寢殿造·桂離宮·伊勢神宮·正倉院 등의 전통에 기초를 두고, 철근콘크리트의 기둥·보·난간 등을 대담하게 노출시켜 전통적인 木割法을 재현시켰으며, Le Corbusier의 pilotis나 O. Niemeyer의 '브라질 문화성, 1943' 저층부의 형태를 모방하여 西歐와 일본을 통일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카가와(香川)현청사, 1958'에서는 평면형식에 코어시스템, 외관에는 테라스 난간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여 日本 工匠의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실내종합경기장, 1964'에서는 현수지붕 형태를 조형기반으로 한 기둥·구조·표현의 명쾌한 통합에, 神社의 지붕형태와 평면형식과 관련된 이미지 추상의 표현 등이 덧붙여 보였다. 오종길, 「켄조 단케 건축에서 나타난 일본현대건축의 근대성과 전통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석론, 2004

4) "(중략) 저의 아버님이 건축가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건축가라

그리고 쿠로가와와가 6년간 다녔던 불교계 중등학교에서 벤쿄(Shiio Benkyo)⁵⁾ 스님에게 받았던 불교 교육과 메타볼리즘 운동을 시작했을 당시 나카무라(中村元)⁶⁾ 교수가 저술한 『동양인의 사고방식, 1964』 이란 책을 통해, 불교 사상은 쿠로가와와의 건축개념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26세에 가장 젊은 나이의 구성원으로 메타볼리즘 운동⁷⁾을 창설했는데, 이때 불교 사상은 이 운동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조각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죠. 건축가는 예술가여야 한다는 즉, 그림이 교묘하여 선은 아름다워야 하고 작품은 가능한 한 고도의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죠. (중략)"라는 쿠로가와와의 설명이나, 그의 스케치를 세계의 유명 건축관련 박물관 대부분이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父親이 조성한 성장환경을 통해 잘 교육받은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SD편집부, 최영명 역, 『Kisho Kurokawa』, 태림문화사, 1986, 112p

5) 시이오 벤쿄는 쿠로가와와가 다녔던 중학교인 Tokai Gakuen의 校長이었다. 이 佛敎學校는 江戸時代에 설립되었으며, 교원의 절반 정도가 淨土宗 修士들이다. 6년 동안 Shiio에게 佛敎 수업을 받았던 쿠로가와와는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Kisho Kurokawa -From Metabolism to Symbiosis-』, Academy Editions / St. Martin's Press, 1992, 22p

6) 『Ways of Thinking of Eastern Peoples, Univ. of Hawaii Press, 1964』는 佛敎의 발생지인 인도로부터 티베트·태국·중국·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변화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東京大學의 하지메 나카무라(中村元) 교수는 여기서 아시아 문화권의 다양한 사고방식 사이에 차이점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쿠로가와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을 통해 쿠로가와와는 관련 지식에 직접 다가갈 수 있었다. 즉, 大乘佛敎 哲學의 'Consciousness Only(唯識三十頌)', 印度哲學에 영향을 받은 江戸時代의 철학자 바이엔(Miura Baien)의 'Oppositional Unity'에서 부분과 전체에 대한 共生哲學 그리고 禪哲學者 스즈키(Daisetz Suzuki)의 책 특히, 'A is non-A, therefore it is called A'라는 문구에서 즉비(卽非)에 대한 논리는 그러한 사례이다. 黒川紀章, 편집부 역,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7) 1960년 東京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회의'에서 日本의 독자적인 주제를 제기하기 위해 "나의 작품, 나의 이미지"라는 과제를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는데, 이때 대두한 의견이 키쿠다케 키요노리(菊竹清訓)의 '交換의 理論'이었다. Metabolism을 전개시킨 7명의 구성원들 중 카와조에 노보루(川添登), 키쿠다케, 쿠로가와(黒川紀章), 후미히코 마키(横文彦), 오다카 마사토(大高正人) 등이 건축가다. 아라타 이소자키는 정식 구성원은 아니었고 단케 켄조는 배후에서 후원하였지만, ①일본의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변안하는 것, ②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을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확대하려는 사고 등은 단케와 메타볼리즘 선언의 공통점이다. 이들은 1960년대 초 Y. Friedman의 '움직이는 건축' A.V. Eyck의 '성장하는 건축' L. Khan의 '주공간과 공공간' Archigram의 'Plug in City'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가장 완벽한 新陳代謝 시스템을 지닌 것이 生命體라는데 착안하여, 그것을 도시와 건축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디자인의 단계에 있어 조작용 자극하는 모멘트가 되는 개념으로 群化(엔트로피·단위·확률·다양성의 개념), 結合(콘택트·중합·공존·매개·교환·중폭·절단의 개념), 成長(증식·교환·분열·과피의 개념), 效率(속도·밀도의 개념), 刺戟(촉매의 개념), 流動(정보유통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메타볼리즘이란 용어는 小宇宙의 동적인 변화를 은유한다는 개념으로서, 일본건축의 구성적·환경적 전통과 자연형태를 기능주의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불교적 우주관인 '우연'의 개념을 무시하고 고도의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 전체는 非사회학적 의미와 도시스케일상의 모순을 표현하고 있다. 김문덕, 「현대건축의 Metabolism적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1

또한 메타볼리즘으로부터 심바이오시스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온 쿠로가와의 건축개념에서는 ‘삶의 원리’와 ‘일본 문화’가 일관된 두 개의 주제인데, 이것 역시 불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서구와의 대립구도를 통한 일본의 우수성 주장: 쿠로가와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과 서구의 대립구도’⁸⁾를 통해 일본문화와 사상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비롯된 자신의 건축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서구의 이원론(二元論)적 정신세계⁹⁾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일본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일본의 근대화시기에 도입되었던 서구의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 인본주의(humanism), 보편주의(universalism) 그리고 이들의 결과로서 건축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비평적인 시각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쿠로가와는 ‘이세신궁(伊勢神宮)’ ‘가즈라리큐(桂離宮)’와 같은 일본의 우수한 전통건축들을 메타볼리즘의 모티브¹⁰⁾로 활용하였지만, 그의 스승 단계처럼

8) 일본은 明治維新 이후 특히, 軍國主義가 팽배할 시기에 의식적으로 西歐와 일본을 비교해가며 ‘일본과 서구’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전통문제를 재구성하려는 帝國主義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帝冠樣式’ ‘日本趣味’ 혹은 ‘東洋趣味’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졌고, 켄조 단계와 메타볼리즘 구성원들 역시 西歐를 의식하여 내부(日本)적으로 준비된 ‘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김기수, 일본건축에서 전통에 관한 담론들, 건축, 대한건축학회, 2009.12, pp14~19

9) 쿠로가와는 ‘일본과 서구의 대립구도’ 속에서 脫構造主義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의 주장과 유사하게 서구사상과 문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일본사상과 문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그의 건축개념을 代案으로서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쿠로가와는 서구 사상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기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 유럽中心主義: 白人의 인종 우월주의와 文化 우월주의, ② 理性中心主義: ‘이성과 감정’ ‘남과 여’ ‘백인과 흑인’ ‘천사와 악마’ 등과 같이 이상적이고 우월한 존재를 성립시키기 위해 열악한 존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자 자기 동일한 개념을 양산하는 메타주의 즉, 서구의 이원론적 정신세계, ③ 人本主義: 동양의 사상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지 않고,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이유로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 ④ 普遍主義: 들뢰즈가 얘기했듯이 차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있지도 않은 실체를 절대시하는 데서 비롯된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비슷한 맥락 즉, 건축에서 地域主義와 같이 다른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 동일한 외관의 획일적인 國際主義 樣式의 건축을 양산한 것.

10) ‘이세신궁’은 서로 근접한 두 개의 다른 부지에 있다. 그것은 690년부터 1,300년간에 걸쳐 매 20년마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해체와 재건축을 반복한 독특한 구조물이다. ‘이즈모 신사’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재건축된 것이 아니라, 1,000년간에 걸쳐 몇 번 재건축되었다. ‘카즈라리큐’는 17세기 초에 완공된 이래 150년간에 걸쳐 두 번 증축되었다. 이러한 일본 전통건축의 구축과정은 서구의 고정된 건축과는 달리 메타볼리즘과 메타몰포시스의 개념인 성장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쿠로가와는 주장한다. 『Kisho Kurokawa -From Metabolism

일본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의 접목으로 제시되었던 일본의 전통적인 목할법(木割法)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건축개념을 일본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3) 변화된 시대의 패러다임 반영: 쿠로가와는 건축이란 시대정신의 표현인데, 자신의 관심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해왔다고 말한다. 시기별로 1960년대에는 메타볼리즘과 개방된 구조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졌었다. 1970년대에는 메타몰포시스, 중간영역, 애매성에 대해 얘기했었다. 1980년대에는 심바이오시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보다 확대된 통합적인 심바이오시스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건축개념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이론이 후기구조주의(解體主義) 사상이나 생물(태)학, 홀론(Holon: 생물과 환경의 종합체), 프랙털(fractal) 등과 같은 과학 분야의 변화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쿠로가와는 세상이 ‘산업화·근대화’ ‘기술·기계의 시대’에서 ‘삶의 시대’ ‘정보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¹¹⁾

산업사회의 기계는 유형(visible)이지만 정보사회의 기술은 무형(invisible)이다. 정보시대에서 무형의 기술(특히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방식의 관계(關係)를 의미한다. 관계는 다른 것에 존재를 허용하고, 주변 환경과 차이(差異)를 용인한다. 쿠로가와는 새로운 시대에 공생(共生)의 개념이 상호관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요소들로 건물을 해부하고 그것을 재조립하는 것은 정보시대의 건축적 표현이다. 기술이 안보임에 따라 하이테크 건축으로서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는데, 이것이 메타볼리즘 건축에서의 하이테크한 표현 이후로 그의 작품에서 기술이 점차로 우위를 덜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2-2. 키쇼 쿠로가와의 건축개념

쿠로가와의 건축개념에는 불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의 원리’와 ‘일본 문화’라는 두 개의 주제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적절한 이론과 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

to Symbiosis-』, Academy Editions St. Martin's Press, 1992, p16

11) 사람의 삶과 機械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삶이 낭비적이고 불명확한 것과 유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계는 필요 없는 애매성을 모두 제거하고 완전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다는데 있다. 만일 기계가 균질화 된 시대를 나타낸다면 삶은 多元主義 시대를 나타낸다. Editorial Staff, 『Kisho Kurokawa -Selected and Current Works-』, The Images Publishing Group Pty Ltd, 1995, p10

히 도입하여 확대, 강화시켜 온 그의 건축개념은 메타볼리즘으로부터 심바이오시스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왔다. 드류(Philip Drew)는 『Third Generation, 1977』에서 쿠로가와를 메타볼리즘의 창시자로서, 오로지 논리의 단련을 견뎌낸 결과 강렬하고도 도전적인 형태를 출현시킨 극히 이론적인 건축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쿠로가와와 그의 건축개념은 리좀(rhizome)¹²⁾과 같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어 난해하다. 하지만 그의 건축개념은 메타볼리즘(新陳代謝), 메타몰포시스(變形) 그리고 심바이오시스(共生)와 같이 크게 3개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메타볼리즘(metabolism)의 개념

메타볼리즘은 이제껏 미래적, 하이테크적인 건축 운동으로만 생각되어져 왔지만, 그것의 본래 개념은 인간과 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초월하는데 있으며, 인간과 기계가 공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쿠로가와가 말하는 메타볼리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삶과 그것의 형태를 강조하는 기계시대에 대한 도전이다. ②역사적 전통, 장소의 본성과 같이 근대건축에서 잃어버렸거나 간과했던 요소들의 부활이다. ③전체뿐만 아니라 부분의 자율성, 이종(異種)문화를 강조한다. ④유전자(DNA)를 통해서 인간 신체의 정보가 미래의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이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철학, 생활양식 그리고 미적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이것은 가장 발전된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⑤메타볼리즘의 건축은 임시적 건축이다. 역동적인 균형은 서구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미적 이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불교에서 덧없음(impermanence)의 개념을 표현한다. ⑥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시간과 공간 둘다에서 개방된 체계로서 건축과 도시를 생각한다. ⑦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공생으로서의 통시성(通時性)과 다른 문화들에 대한 공생으로서의 동시성(同時性)을 추구한다. ⑧성(聖)스러움, 중간영역, 애매성 그리고 불명확성은 삶의 특별한 모습이다. ⑨메타볼리즘의 건축은 정보시대의 건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無形)의 정보, 기술, 생명과학은 건축적 표현을 만든다. ⑩현실 그 자체보다 관계(關係)에 가치를 둔다.

12) 脫構造主義 철학자인 Gilles Deleuze와 Felix Guattari는 인간과 기계, 사회와 기술은 상반되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리좀과 같이 식물 속에 긴밀하게 섞여 짜인 상태로서 보고 있는데, 쿠로가와 건축개념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체계와 유사하다.

1963년에 메타볼리즘 운동은 성장과 변화가 허용되는 모델로서 세포(cell)와 신경조직(nervous system)을 공표했었다.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지는 성장·변형·해체 그리고 부분들의 자율성, 재순환, 역동적 안정성이다. 그것의 건축적 표현은 건축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합의 다양한 가능성을 창조하고자 한 캡슐(capsule) 건축이었다. 생명체 안에서 자율적인 부분들은 신경조직에 의해 보다 복잡한 단계로 조직되는데, 여기서 ‘삶의 원리’라는 개념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개방된 구조, 매트릭스, 리좀과 같은 중요한 이론을 통해 건축으로 구현된다.

2-2-2. 메타몰포시스(metamorphosis)의 개념

‘메타볼리즘’이라는 용어가 과학지상주의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타볼리즘 운동 초기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것이라면, ‘메타몰포시스’라는 용어는 메타볼리즘의 뒤를 이어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생명의 출현과 성장, 사멸 등의 변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몰포시스는 개념상 선행하는 메타볼리즘과 불가분의 관계이다.¹³⁾

패전 이후 산업국가로서 성공한 일본에서 메타볼리즘 운동은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정보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미래의 잠재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1970년 오사카박람회(大阪 Expo)는 이러한 경향들의 정점이었다. 도시와 건축, 사람과 기술 사이에 대립이 격렬해진 시기였던 1970년대 쿠로가와와 그의 작품은 주요 개념에 변화하는 과정적 단계의 매체로서 작용하는 중간영역(中間領域), 애매성(曖昧性), 양의성(兩意性), 다의성(多意性)의 이론에 의해 발전되었던 메타몰포시스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⁴⁾

13) 메타볼리스트가 그들의 첫 번째 저서인 『메타볼리즘/1960: 도시에의 제안, 1960』의 뒤를 이어 발행할 계획이었던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을 ‘메타몰포시스’로 정했다는 것에서도 그 개념상의 밀접함을 알 수 있다. 敗戰 이후 파괴된 東京이 경이로운 속도로 부흥을 이루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건축가들은 엄청난 도시의 변화를 생물적인 이미지에서 유추해 ‘메타볼리즘’의 의미, 그리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현대도시의 미래상을 보면서 ‘메타몰포시스’의 의미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메타볼리즘의 사상적 지주였던 카와조에(川添登)는 ‘메타몰포시스’의 의미를 物質(新陳)代謝를 통해 동반되는 변환 및 전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단케(丹下健三)는 樹木이 잎사귀를 갱신해서 성장하는 지속적인 메타볼리즘에 대하여, 수목에 열린 핵이 새로운 수목으로 성장하는 단속적인 변화를 ‘메타몰포시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류재호, 「일본의 메타볼리즘 건축운동에 있어서 메타몰포시스 개념의 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2호, 2008년 12월, pp162~164

14) 無秩序로부터 질서로, 세포의 단순한 집합으로부터 복잡한 생명 구조로, 유충에서 나비로 되어갈 때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메타몰포시스다. 따라서 그것의 개념은 생명체가 성장, 진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가는 생태계와 생명현상의 변형을 의미한다. 쿠로가와

메타몰포시스는 일본전통 문화와 공간¹⁵⁾에서와 같이 중간영역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풍부하고, 애매하며, 양의성의 예술성을 복원시키고 계승하는 중간영역이라는 쿠로가와와 이론은 이항(二項)적 대립 사이의 공통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삶의 원리'에 대한 중간영역을 위한 모델은 세포막(cell membrane)이다. 그것은 상호투과가 허용되는 반투과성의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의 상호 투과하는 건물의 정면, 격자(格子) 그리고 다층화 된 표면들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을 만드는 중간영역들이다.¹⁶⁾

2-2-3. 심바이오시스(symbiosis)의 개념

심바이오시스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즉, 역사와 현재의 공생, 전통과 최신 기술의 공생, 부분과 전체의 공생, 자연과 인간의 공생, 다른 문화들과의 공생, 예술과 과학의 공생, 지역주의와 보편주의의 공생이 그것이다. 미래의 건축은 과거를 포용하고 지역적 전통을 중시하면서,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적 측면도 건축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쿠로가와가 말하는 심바이오시스의 건축이다.¹⁷⁾

는 그의 저서 『黑川紀章ノ下, 同文書院, 1994』에서 메타몰포시스 공간을 각각의 건축공간이 축적되어서 도시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Milan의 Galleria와 같이 건축물을 이어주는 中間領域을 가진 공간이 개개의 건축물이 도시공간으로 메타몰포시스(변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 '노(能)'의 제아미(世阿彌)가 창안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간격"을 뜻하는 세누히마(senuhima)라든가, 書藝에서 선들 사이의 흰 여백, 절대적인 최소한의 단어로 이뤄진 하이쿠(俳句), 石庭속에 들의 배치 등이 일본 전통문화에서 中間領域에 속하듯이,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나타내는 마(間) 그리고 쇼인(書院: 鎌倉시대 상류사회의 주거건축)과 스키야(敷寄屋)에 엔가와(縁側)라 불리는 정원과 주거 사이의 베란다인 일본 전통건축에서 애매성과 양의성을 두 개의 대립되는 공간에 도입하는 中間領域이다.

16) 쿠로가와와 日本에서 번역·출간했던 Jane Jacobs,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에서의 論旨과 유사하게, 西歐의 廣場에 대해 東洋의 距離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거리의 건축'은 어떤 영역을 창조하고, 상호 침투하는 것이기도 하다. 16세기에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칙령에 의해 중심부의 거리는 공동체의 공간으로서 양 측면을 거주자들에게 임대해왔고, 교통수단으로서의 거리 기능은 부차적으로 되었다. '거리의 건축'의 특별한 성격은 메타볼리즘 운동의 시작 이래로 쿠로가와와 주제 중 하나였고 中間領域의 전통적인 원형이기도 하다. 여기서 메타몰포시스의 주요한 이론인 중간영역이 비롯됐다. 일본에서 거리와 주택 사이에 중간영역을 만들어내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울타리나 格子는 프라이버시의 제공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며, 거리의 양 측면을 따라 건물의 正面에 흔히 사용된다. 黑川紀章, 편집부 역,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p80

17) 이것은 통시성(diachronicity) 또는 다른 時代와의 共生 그리고 동시성(synchronicity) 또는 다른 文化와의 共生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첫째, 일단 완성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의 발전을 수용하는 건축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공생으로서의 통시성이다. 둘째, 空間의 동시성이다. 동시성은 다른 모든 문화들에 대해 동일한 거리와 친밀한 감정을

또한 심바이오시스의 개념은 불교적 사상¹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의 방식이며, 문화의 근간이기도 하다. 불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건축개념 때문에, 자각(自覺)에 대한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사상만이 심바이오시스의 본래 개념이라고 쿠로가와와는 말해왔다. 심바이오시스는 메타볼리즘과 메타몰포시스 둘 다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으며, 쿠로가와와 건축개념의 궁극적인 목적 즉, 시간과 장소의 공생을 의미한다.

'삶의 원리'에 대한 건축적 특성으로서 정체성(正體性)과 장소성(場所性)이 있다. 정체성은 유전자처럼 시대를 거쳐 사람들과 지역에 전해진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의 공생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장소성은 각각의 장소가 소유하는 유전자이다. 장소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핵주위의 세포질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정체성의 유전자에 의해 전달된다.¹⁹⁾

2-3. 키쇼 쿠로가와와 건축개념 특성

쿠로가와와는 자신의 건축개념에 근거를 이루는 일본 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탐색하는 많은 저술 활동을 해왔다. 쿠로가와와 건축개념에는 불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의 원리'와 '일본 문화'라는 두개의 주제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²⁰⁾ 또한 관련 분야의 적절한

나타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더니즘이라는 보편적인 像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의 콘텍스트를 사용해서 건축을 만드는 것은 획일화된 국제주의 양식으로부터 다양화된 異種文化로의 움직임으로 쿠로가와와는 보고 있다.

18) 佛敎의인 概念에서 비롯된 메타볼리즘과 같이 심바이오시스의 概念 역시 불교에서의 共生과 같은 개념이다. 1960년대 메타볼리즘 운동이 진행 중일 때에는 還生, 輪廻, 덧없음에 대한 불교적 개념이 항상 논쟁의 주제였다. 메타볼리즘 이론에서 '기술과 인간'이란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개념은 共生이라고 쿠로가와와는 말했다. 대승불교의 유식(唯識)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공생은 有와 無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中道論의 성격을 띠며 세계를 二元論 내지는 二項對立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공생하고 있는 中間領域의 상태를 중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쿠로가와와 '삶의 원리'의 건축은 中間領域을 지남으로써 兩意性, 多意性, 애매성이라는 생명의 원리 그 자체의 성격을 표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훈, 『安藤忠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水空間의 共生의 解釋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9호, 2001년9월, pp165~167

19) 歷史·傳統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有形의 歷史인데, 전해 내려오는 건축적 형태, 장식적 요소와 상징들이다. 둘째, 철학·종교·감각·미학과 생활패턴 같이 눈에 안 보이는 無形의 歷史다. 西歐에서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유형의 유적을 평가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월을 통해 전수되는 감각 즉, 무형적인 것이 존중된다. 고대 그리스의 Parthenon신전과 같이 서구에서 역사는 물질로서 보존될 뿐이지만, 일본에서는 '伊勢神宮'과 같이 유전자(DNA)방식에 의해 정신적인 유산으로 보존한다.

20) 佛敎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의 原理'와 '日本 文化'라는 건축개념의 핵심적인 두 개의 주제에 대해 쿠로가와와는 어떠한 정도도

Tab. 1 The Synthetical Diagram of Metabolism, Metamorphosis and Symbiosis in Kurokawa's Architectural Concepts

| | METABOLISM | METAMORPHOSIS | SYMBIOSIS |
|--------------|---|--|--|
| 변화된 시대 | - '산업·모던·기계의 시대'는 '삶과 정보의 시대'로 바뀌었다. - Mandelbrot의 Fractal 기하학, Arthur Koestler의 Holon, Heisenberg의 양자역학, Einstein의 일반상대성의 원리와 같이 과학적인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Gilles Deleuze와 Felix Guattari의 rhizome과 같은 개념은 삶과 정보의 시대에 유용하다. - 일본은 서구의 배타적인 사상 즉, 유럽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인본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을 일본의 문화와 사상을 통해 극복해야만 한다. | | |
| 배경 사상 | - 불교와 인도의 사상 - 건축가였던 쿠로가와와 부친과 당시 일본 건축계의 중심이었던 케조 단계의 건축적 영향 - 이세신궁, 카즈라리큐와 같은 일본의 우수한 전통건축 -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자부심 | | |
| 매체의 개념 | Grow, Change, Principle of cell, Image of nervous system, Matrix | Adaptation, Change, Non-distinctness, Divinity, Nervous system, Relation | Diachronicity, Synchronicity, Relation, Aesthetics of Japan |
| 건축에 대한 주요 이론 | Cell, Capsule, Cycle, Change, Media, Temporariness, Street, Matrix, Network, Corridor, Destruction, Open Space(or Order) | Cell membrane, Intermediate zone, Ambiguity, Interpenetration, Ambivalence, Multivalence, Cell nucleus, Grid, Gate, Atrium, Hyper-space, Stage | Gene, Identity, Topos, Tradition, Memory, Poem, Indefinite, Cosmos, Genetic code, Rhizome, Abstraction, Connotation, Relation, Cytoplasm, Mental picture |
| 상관 관계 |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이론과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입한 메타볼리즘, 메타몰포시스, 심바이오시스의 같은 쿠로가와와 주요 건축개념들은 리큐나 네트워킹과 같이 복잡하게 섞여있어 난해하다. 따라서 이런 3개의 주요한 개념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 메타몰포시스는 변화하는 과정의 단계에서 메타볼리즘과 심바이오시스 사이의 매체로서 역할 한다. | 쿠로가와와 심바이오시스가 메타볼리즘과 메타몰포시스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
| 내용 | 메타볼리즘의 개념은 인간과 기계가 공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인간과 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초월하고자 한다. | 중간영역, 다의성, 양의성, 애매성 등은 대표적인 매체 이론인데 이것은 메타몰포시스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심바이오시스는 쿠로가와 건축개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심바이오시스는 시간과 공간의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중불교의 사상과 매우 밀접하다. |
| 건축적 표현 | Helix & Tetra structure, Nervous system, Prototype, Image of machine, Capsule | (정)사각형, 입방체, 삼각형, 피라미드, 원(추), 구, 타원 등은 쿠로가와가 그의 건축에 자주 사용하는 추상적인 형태들이다. Abstraction, Rikyu grey, Ripple | Abstraction, Rikyu grey, Ripple, Fractal geometry |

이론과 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도입하여 확대, 강화시켜 온 그의 건축개념은 메타볼리즘으로부터 심바이오시스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왔다.

쿠로가와와 일본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발전된 자신의 건축개념이 현대건축의 제(諸)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임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과 서구건축의 차이'²¹⁾ '일본과 서구의 대립구도' 등을 통해 서구사상과 문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국제주의 양식 건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쿠로가와와 주관적인 관점과 논리의 비약이 있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쿠로가와와 건축개념은 '삶의 시대' '정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제 하에서 3개의 주요 개념에 변화하는 과정적 단계에서 매체로서 작용하는 중간영역, 애매성, 다의성 등의 이론과 리큐 그레이(rikyu grey)²²⁾, 추상

적 형태 등의 표현방식을 매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몰포시스와 심바이오시스라는 개념을 이미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메타볼리즘(新陳代謝), 메타볼리즘과 심바이오시스 사이에 매체로서의 메타몰포시스(變形) 또한 메타볼리즘과 메타몰포시스라는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심바이오시스(共生)라는 3개의 주된 개념에 도달하고 있다. 메타볼리즘과 심바이오시스는 그 개념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섞여있으며, 메타몰포시스는 중간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의 매체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쿠로가와가 생각하는 최종의 건축 목적은 심바이오시스라 할 수 있다. 그의 건축개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Tab. 1] 과 같다.

3. 키쇼 쿠로가와 건축표현의 특성

3-1. 키쇼 쿠로가와와 건축표현

이제껏 일본 내·외의 여러 건축평론가들이 일본현대건축의 경향과 쿠로가와와 작품세계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한 바 있었다. 이 중에서 코바야시(K. Kobayashi)는 기하학, 세련미,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를 일본현대건축의 네 가지 표현경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일형은 일본현대건축의 기점이라 볼 수 있는 1960년대

내린바 없다. 하지만 그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론해보면, '삶의 원리'는 불교와 인도철학을 바탕으로 생명의 원리, 생물학적 이론을 통한 정신적인 유전자로서 문화와 건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 문화'는 쿠로가와 자신의 건축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사례로서만 대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日本的인美' 만큼이나 전 세계에 웬만큼 알려졌다가 생각에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21) 西歐건축은 자연에 대항하여 성립되었지만, 日本건축은 자연과 더불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주거·도시들은 자연의 일부로서 간주된다고 쿠로가와와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서구에 '돌(石)의 문화'와 일본에 '나무(木)의 문화' 사이에 존재한다. 나무의 문화에서 기본적인 구조 유닛은 벽체가 아니라 기둥인데, 결과적으로 벽체의 위치는 자유롭고 유동적이다.

22) '국립민족학박물관, 1975'의 外壁은 기와 색깔의 灰色을 쓰고 있는데, 쿠로가와와는 이것이 日本의 오래된 기와 색깔을 연상시킨다는 의미로 '綠色을 띤 취색'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兩意性 또

는 多意性인 藝術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볼 수 있다. 양의성과 다의성은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1973』에서 현대 문화·예술·건축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언급된바 있는데, 1970년대 美國建築의 'White와 Grey' 論爭에 비유해서 쿠로가와와 건축을 日本의 Grey로 부르기도 한다. The Japan Architect, 『Kisho Kurokawa』, Shinkenichiku-Sha, Tokyo, 1995-2, p16

이후 공통적 표현특성으로 절충적(折衷的) 특성, 다원적(多元的) 특성, 서구적 또는 일본적인 모티브, 기계미학의 추구, 근대건축의 지속 그리고 해체(解體) 또는 네오모던적 경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쿠로가와와는 전자(前者)의 경우 기하학, 세련미는 강하게 그리고 상징주의, 표현주의는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후자(後者)의 경우는 절충적 특성, 다원적 특성, 일본적인 모티브에는 강하게, 기계미학의 추구는 초기작품에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자신의 건축표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절충적 특성’ ‘다원적 특성’ ‘일본적인 모티브’ ‘기계미학의 추구’에 대해 쿠로가와가 말하는 내용²⁴⁾과 개념을 포함해 그

23) 일본현대건축의 경향에 대해 Robin Boyd는 『New Directions in Japanese Architecture, George Braziller, New York, 1968』에서 당시의 관점에 따라 일본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차이에 대해 다섯 가지로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폭넓게 수용된 객관적인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 David Stewart는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1868 to the Present-, Kodansha International, Tokyo, 1987』에서 전통의 새로운 접근, 일본적 공간의 부활과 기술, 은유 그리고 조각과 卽物性을 일본현대건축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야즈카 하지메(八束はじめ)는 일본현대건축을 ①1960년대는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도시들은 거대한 건물들이 상호 대립하는 또는 역으로 그러한 거대한 건물들로 구축되는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모습 ②1970년대는 도시지역이 익명적이고 삭막한 환경으로 변해 버렸고, 이에 대해 건축가들은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부분의 경우 작지만 자극적인 작품으로서 그러한 경향에 대항하고 있는 점 ③1980년대의 도시는 이전의 물리적 측면 이상의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의미가 충만한 이러한 현상을 ‘記號의 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즈키 히로유키(鈴木博之)는 『日本の現代建築 1958~1985, 대건사, 1987』에서 ①황금전성기(1955~64); 1960년의 메타볼리즘 생성과 1964년 東京올림픽이 기폭제가 되었던 시기 ②모랄의 시대(1965~73); 1970년 오사카박람회 의한 메타볼리즘 이론의 적용시기 ③건축의 기술성숙화(1974~84); 포스트모던, 하이테크, 지역주의 등 다양한 입장에서 활성화될 시기별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Botond Bogнар는 『The New Japanese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0』에서 일본현대건축은 ①모든 건물들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현대 일본의 도시적·문화적 조건에 대한 하나의 비평적 언급이거나 파생물이라는 점 ②모든 건물들이 완결된 전체성과 연속성 또는 동일한 형태로 결집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특별한 파편적 특성을 선인한다는 점 즉, 종합을 이루지 않는 집적이라는 질서를 따라 구성되고 있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쿠로가와에 대해 Botond Bogнар는 이데올로기적 불확실성이 쿠로가와 건축의 특징을 결정한다고 했다. “(중략) 발전과 탐험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지만은 않다. (중략) 실제로 지어진 많은 작품들은 쿠로가와와 이론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중략)” 고 평했다. Kenneth Frampton은 『The Japan Architect -Kisho Kurokawa 1988~1995-, 新建築社, 東京, 1995』에서 메타볼리즘, Technocrat, 메두사의 뱀목, 共生, Rikyu Grey로 쿠로가와 건축의 5가지 양상을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분류가 모호한 편이다. Yoichi Iijima는 日本的이라는 것, 境界의 연출, 生과 死의 연속성, 우주적인 질서라는 다소 추상적인 분류로 쿠로가와와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上記의 본문 내용에 대한 문헌자료의 출처이다. Dirk Meyhofer,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Katsuhiko Kobayashi, Currents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Taschen, 1994 / 이일형,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년 3월

자신이 밝힌 건축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삶의 원리’와 ‘생활 방식’에 대한 시대정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일본문화의 정체성이 현대건축에 통합될 수 있는가로부터 건축적 표현이 비롯됐다. 둘째, 설계행위의 단순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디자인 과정에서 메타볼리즘, 메타물포시스, 심바이오시와 같은 주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중간영역, 애매성, 다의성 등과 같은 매체이론을 통해 형상화됐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연현상과 유기체로부터의 프랙털(fractal)이론, 식물학적 유추²⁵⁾ 그리고 다른 건축가들이 다루지 않은 리플(ripple: 잔물결 모양), 리큐 그레이(rikyu grey) 등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지향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도 건축이라는 제약(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구축물, 예산, 건축주와 시대적·사회적 요구 등)이 갖는 한계 때문에 대부분은 당시의 제반적 요구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쿠로가와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작품경력에서 중, 후반기로 갈수록 그가 주장해왔던 건축개념의 실현보다는 일반적인 방식과 추상적인 표현의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을 갖고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쿠로가와와의 복잡한 개념체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서의 건축적 표현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구분 즉, ‘형태’ ‘재료와 색상’ ‘구조와 기술’로 그 특성을 분류해볼 수 있다. 여기서 ‘배치·평면과 동선’ 등 건축계획 상의 분석요소가 제외된 것은 그의 작품집에서 건축개념과 관련하여 변별성 있

24) ①折衷의 特性; 쿠로가와와는 日本文化를 黑白을 쓰지 않는 애매한 바탕위의 ‘grey文化’라고 부르고, 비영속성의 용인과 변화의 필요성, 문화와 사상을 공생적으로 결합하는 것, 접하고 있는 요소 사이의 매개적인 공간 등을 통해 일본문화의 ‘절충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짓고 있다. ②多元의 特性; Charles Jencks, 『Late-Modern Architecture, 1980』의 ‘日本建築의 多元主義’에서 다루진 쿠로가와와 건축에 대한 상세한 記述과 다원적 특성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쿠로가와와 언급 그리고 ‘삶의 시대’를 주장한 그가 ‘삶은 多元主義다’라고 한 말을 통해 볼 때,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다원적 특성’을 가능할 수 있다. ③日本の인 모티브; “현대는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역사적인 고유성 속에서 인지작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건축가의 임무는 그 인지작업을 통하여 현대건축에 모비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면서 지역성을 통해 국제성의 성취를 피한다고 ‘일본적인 모티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機械美學의 追求; ‘와코루 코지마치 빌딩, 1984’에서는 직물처럼 서로 짜 맞춘 알루미늄과 neoprene, 유리의 구성으로 경쾌한 재질감의 외관을 표현했는데, 이 건물은 동서양 각각의 문화와 맥락에서 모은 記號로 된 우주선이라고 말하고, 건물의 매끈한 표현은 기계미를 표현한다고 기계미학의 추구에 대해 설명했다.

25) 쿠로가와와 『메타볼리즘/1960: 도시의 제안, 1960』에서 소개한 계획안들은 ‘대나무形 도시’ ‘식물形 도시’ ‘버섯形 주택’ 그리고 물위에 떠있는 睡蓮의 모습을 한 ‘水上都市-카즈미가우라’ 등 그 이름에서부터 植物學的 類推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게 다뤄진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 형태: 쿠로가와와 건축에서 표현된 형태는 흔히 추상(抽象)적이다. 그는 추상이란 철학·예술·건축에서 모던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과지만, 미래에도 추상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추상적인 기하학은 다른 문화들과 공유되는 보편성과 특별한 역사적 중요성 둘 다를 포함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쿠로가와가 건축표현에 사용해왔던 입방체, (정)사각형, 삼각형, 사변형 또는 삼각 피라미드, 원형, 원뿔, 구체(球體) 그리고 타원형 등은 모던한 기하학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고대인들의 시각과도 공존한다. ‘삶의 원리’에 관해서 그것들은 하나의 유전적 코드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정형적인 형태와 순수기하학적인 형태 그리고 자유곡선의 형태 등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조소적인 조형수법과 더불어 건축가 자신의 직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배치와 평면형식에 나타나는 형태는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2) 재료와 색상: 쿠로가와와 건축에서 사용된 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리큐 그레이 색상의 타일, 티타늄 등 재료의 특성들이 각각 표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독특한 방식의 티타늄 판 삽입 포함), 석재(화강암, 자연석), 금속(스틸, 알루미늄, 티타늄), 벽돌, 타일(메탈릭 타일, 세라믹 타일), 목재, 유리(반사유리 포함) 등 대체로 일반적인 건축 재료와 다르지 않다. 또한 경량소재의 재료들을 통해 외피를 좀 더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사용된 색깔은 일반적인 색상 외에 녹색을 띤 회색 계열의 리큐 그레이가 특별하다.

(3) 구조와 기술: 격자형태의 구조 프레임은 건물의 외관에 노출시킨 여러 건물이 근자에 완공됐다. 이전에 콘크리트의 가소적 특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태에서, 하이테크적인 이미지의 재료를 사용한 기하학적인 추상적 형태가 건물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쿠로가와와 건축에서 사용된 구조와 기술은 벽돌조, 커튼월, 격자(格子) 프레임, 프리캐스트 방식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오사카박람회 때 구조체의 구성부재로서 사용한 테트라(tetra)구조와 그 이후에 사용된 캡슐(capsule)구조가 특별한데, 영국의 아키그램(Archigram)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²⁶⁾

26) 야즈카 하지메(八東はじめ)는 메타볼리즘 건축운동의 건축사적 분석에서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방

3-2. 키쇼 쿠로가와와 개념별 건축표현 특성

Tab 2. The Analytical Diagram of Architectural Expression in Metabolism by Form, Material & Color, Structure & Technique

| A: rectangle / B: triangle / C: circle / D: the rest ●: strong / ◐: normal / ○: weak | | | | | | |
|---|------------|---|---|---|----------------------------|-----------------------|
| METABOLISM | | | | | | |
| Works | Expression | | | | | |
| | Form | | | | Material & Color | Structure & Technique |
| | A | B | C | D | | |
| 1967, Resort Center Yamagata Hawaii Dreamland, Japan | | | ● | ○ | concrete | - |
| 1968, Expo70 Toshiba IHI Pavilion, Japan | | ● | ○ | | steel | tetra |
| 1968, Expo70 Takara Pavilion, Japan | ● | | | | steel | capsule |
| 1970, Nakagin Capsule Tower, Japan | ● | | | | concrete, steel | capsule |
| 1973, Sony Tower, Japan | ● | | ○ | ○ | steel, aluminum | capsule |
| 1975, Kumamoto Municipal Museum, Japan | | ● | | | concrete | - |
| 1975, National Ethnological Museum, Japan | ● | | ● | | concrete, rikyu grey | - |
| 1977, Headquarters of the Japanese Red Cross Society, Japan | ● | | | | brick | twin tower |
| 1984, As-Sarir New Town As-Sarir, Libya | ● | | ◐ | | concrete | - |
| 1983, National Bunraku Theater, Japan | ● | | ◐ | ○ | rikyu grey | - |
| 1984, Wacoal Kojimachi Building, Japan | ● | | ● | ○ | metallic tile, white color | - |



Fig.1 Nakagin Capsule Tower(L) Fig.2 Sony Tower(M) Fig.3 National Ethnological Museum(R)

(1)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 건축은 미술공예운동과는 달리 근대의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것은 시설이 자주 교체되어야만 하는 공장에 효과적이었는데, 기초 없이 바다에 떠있는 공장계획안인 ‘Metabonate, 1969’와 같이 공장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각각의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되는데 유리했다. 또한 ‘나카진 캡슐타워, 1972’와 ‘오사카 소니타워, 1973’는 극적인 기계로서의 상징적

가르드 건축 및 도시계획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국토에서부터 주거 환경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1960년대의 메타볼리즘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兩者가 시대의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바꾼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향하였다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물론 이러한 것은 同時代를 풍미하면서 과학기술적, 낙관주의적 환상을 보여 주었던 英國의 Archigram 건축운동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八東はじめ, 『メタボリズム: 一九六十年代 日本の建築 アヴァンギャルド』, INAX叢書, 1997

인 본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과 기계에 대한 공생은 이러한 개념의 핵심인데, 일본에서 사용된 카라구리(絡繰り)²⁷⁾는 그러한 사례이다.

①‘Nakagin Capsule Tower, 1972’에서는 식물의 형태인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에 해당하는 캡슐을 매어다는 방식 등을 통해 식물학적 유추가 사용되었다. 최소한의 크기인 2.3×3.8×2.1m의 주거 유닛은 내후성 표면마감으로 처리되었다. 140개의 유닛들로 구성된 캡슐들은 마치 나무에 달린 잎처럼 두 개의 구조기둥에 두개소의 고장력 볼트로 매어달았다.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구조기둥 부분은 배관을 포함하고, 이 배관들은 각각의 캡슐로 연결된다. 보통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망을 수직으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나무형태로 된 집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Sony Tower, 1973’는 메타볼리즘의 초기 단계에서 시간·공간이라는 문제를 성장·변화로 취급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로 채워보려고 했었는데, 쿠로가와는 이 건물의 설계를 통하여 처음으로 건축다운 건축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한다. 소재의 선택, 기술적 방법, 고정적인 공간과 변화하는 공간과의 상호침투, 기술과 상징과의 양의(兩意)적인 관계를 구성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설계하여 전망 엘리베이터의 내부 움직임이 외부에 보여 활발함을 부여했고, 캡슐건축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관리와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캡슐, 에스컬레이터 유닛, 엘리베이터 유닛, 파이프와 덕트 장치는 모두 외부에 노출되었다.

③‘National Ethnological Museum, 1975’에는 세포단위를 유연하게 결합시켜 연속시킨다는 홀론(holon)의 개념이 반영되었다. 건물의 외벽에는 리큐 그레이의 메탈릭(metallic)타일과 알루미늄 패널이 사용되었는데, 리큐 그레이는 단순한 색채 디자인의 방법뿐만 아니라 공간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시도되었다.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 증축되었는데, 셀 유닛, 성장과 변화에 대한 원리들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

(2) 메타몰포시스: 메타몰포시스는 건축과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적, 공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광장, 거리, 공원, 아케이드와 같은 전형적인 위계(位階)적 요소들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요소로는 거리의 건축, 내부 뜰, 인공

적인 자연과 토양, 아트리움, 다층의 개방된 공간, 입구(gate), 공중 정원, 선큰 가든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메타몰포시스의 요소로서 입구와 안마당 같은 공간은 도시와 건축, 부분과 전체를 공생으로 가져가는 중간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함축적으로 격자가 인용된 ‘Chicago Sporting Club, 1988’과 같이 중간영역으로서의 격자는 추상적이다. ‘The New Tokyo National Art Center, 2005’에서 외부의 자연공간과 내부의 전시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전이(轉移)공간, 유리창을 경계로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같은 높이에 같은 재질의 목재로 구성하는 수법은 메타몰포시스의 구체적인 설계수법으로, 시각적인 연결로 구분의 개념을 완화시켜주는 중간영역을 구현하고 있다.

Tab 3. The Analytical Diagram of Architectural Expression in Metamorphosis by Form, Material & Color, Structure & Technique

| Works | Form | | | | Expression | |
|---|--|---|---|---|--|-----------------------------|
| | A | B | C | D | Material & Color | Structure & Technique |
| | 1972, Head Office, Fukuoka Bank, Japan | ● | | | | concrete, steel |
| 1979, Saitama Prefectural Museum of Modern Art, Japan | ● | ○ | | ● | ceramic tile, rikyu grey | lattice frame |
| 1980, Shoto Club, Japan | ● | | ○ | | concrete, rikyu grey | - |
| 1984, Nagoya City Art Museum, Japan | ● | ○ | | ● | granite, aluminum, rikyu grey | lattice frame |
| 1988, Sporting Club, The Illinois Center, Chicago | ● | | | | concrete, white color | lattice frame, curtain wall |
| 1989, Pacific Tower La Defense, Paris, France | ● | | ● | | concrete, steel, aluminum, white color | curtain wall, precast |



Fig.4 Head Office of Fukuoka Bank(L)

Fig.5 Nagoya City Art Museum(R)

①‘Head Office of Fukuoka Bank, 1972’에서 건물 처마 아래의 개방된 공간에 도입된 텃마루(engawa)는 중간영역의 일종으로 디자인되었는데, 도시 거주민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971년에 시작된 계획안은 거대한 지붕구조물에서 L자형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입구(gate)구조물의 개념은 보존되었다.

27) 카라구리란 日本에서 18~19세기에 사용한 세계 최초의 로봇이라는 Tea-carrying doll을 지칭하는 것으로, ①실로 조종함; 또는 그 장치 ②기계 장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②'Nagoya City Art Museum, 1984'에서 입구부근의 격자 디자인 속에는 은색의 井자형 문이 들어가 있고, 이밖에 붉은 색 문을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다. 3차원의 격자 구조물과 선큰 가든은 건축과 자연,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생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영역이다. 외부 마감은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타일, 알루미늄 패널, 백색 대리석, 흑색 화강석, 커튼월 등으로 구성되어 녹지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여러 곳에 일본의 전통적 기법과 색채가 사용되었다.

(3) 심바이오시스: 심바이오시스의 개념 안에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 장소의 독특함 그리고 성(聖)스러운 자연의 개별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쿠로가와는 말하고 있다. 도시가 근대화되어감에 따라 도시 속의 공통 공간에 대한 구분은 사라지고 있고, 도시가 한때 소유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인간의 중간영역은 상실되었다. 그는 이런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Fukuoka Bank, 1972'의 차양 아래의 개방된 공간에 텃마루(engawa)를 설계했는데, 'Nishijin Labor Centre, 1962'의 거리 공간, 'Tokyo Daido Seimei Building, 1978'으로 이르는 거리, 'Japan Headquarters of the Red Cross Society, 1977' 건물에서 공격·사적 부분 사이의 중간영역 등도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디자인 모두는 건축과 환경의 공생을 재창조한다는 생각으로 계획되었다.

①'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6'는 주변의 숲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약 60%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연계되는 공간들이 건축물의 외관에 편입되어 열주가 늘어선 중앙 공간, 안뜰(patio), 석재로 만든 정원과 조각계단은 건축과 자연, 내부와 외부공간의 공생을 조성한다. 전체적인 건물형태는 18세기 일본의 창고(倉庫)에 근거를 둔 박공지붕 형상인데, 분할되어 있어 하나의 마을, 주거군과 같은 모습을 통해 부분과 전체의 공생을 이루고 있다. 외장에 사용된 재료들은 자연석, 거친 마감의 석재, 석재 타일과 알루미늄 등이 사용되었다. 원폭투하의 기억을 포함하는 역사적인 기호(記號)에는 서구와 일본의 전통이 채용되었지만, 유전적인 재조합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상화되었다.

②'Ehime Prefectural Museum of General Science, 1994' 쿠로가와가 내세운 추상적 상징이라는 개념은 일본 전통의 조영(祖靈)과 정령(精靈)사상에 깊은 관련이 있는데, 'Musee de Louvain la Neuve, 1990'와 이 건물에 명확히 나타난다. 각각의 동(棟)은 정사각형, 원추, 반원형구, 직각삼각형과 같은 순수기하학적 형태

Tab 4. The Analytical Diagram of Architectural Expression in Symbiosis by Form, Material & Color, Structure & Technique

| A: rectangle / B: triangle / C: circle / D: the rest ●: strong / ○: normal / ◯: weak | | | | | | |
|---|------------|---|---|---|------------------------------------|-----------------------------|
| SYMBIOSIS | | | | | | |
| Works | Expression | | | | Material & Color | Structure & Technique |
| | Form | | | | | |
| | A | B | C | D | | |
| 1986, 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pan | ● | ○ | ● | ○ | steel, aluminum, rikyū grey | - |
| 1986, Chinese-Japanese Youth Centre, China | ◯ | ◯ | ● | | concrete | - |
| 1986, Melbourne Central Melbourne, Australia | ● | ● | ● | | concrete, steel | fractal, curtain wall |
| 1987, Information Centre for Bayer AG, Germany | | ○ | ● | | concrete | - |
| 1987, Shibuya Higashi Building, Japan | ● | ◯ | ○ | | concrete, steel | - |
| 1988, Heian Kojimachi Building, Japan | ◯ | ◯ | | | concrete | transformed glass |
| 1988, Fukuoka Seaside Momochi, Japan | ● | ◯ | ◯ | | concrete, wood | lattice frame, curtain wall |
| 1988, Shirase Expeditionary Party to the South Pole, Japan | | ● | ● | | concrete, white color | - |
| 1988, Japanese-German Center of Berlin, Germany | ◯ | ◯ | | | concrete | - |
| 1989, Honjin Memorial Museum of Art, Komatsu, Japan | | ◯ | ● | | concrete, rikyū grey | - |
| 1990, Musee de Louvain-la-Neuve, Belgium | ● | ● | ● | | rikyū grey | divided structure |
| 1990, New Wing, Van Gogh Museum, Netherlands | ◯ | | ● | | titanium, rikyū grey | - |
| 1990, Minami-Yamashiro Cultural Centre, Japan | ● | | ● | ○ | concrete, rikyū grey | - |
| 1991, Wakayama Prefectural Museum, Japan | ● | | ○ | | concrete, ceramic tile | curtain wall |
| 1991, Miki House New Office Building, Japan | ● | ○ | ◯ | | aluminum, stone, rikyū grey | curtain wall |
| 1993, Lane Crawford Place, Singapore | ● | ◯ | ○ | | rikyū grey | curtain wall, double skin |
| 1994, Ehime Prefectural Museum of General Science, Japan | ● | ● | ● | | steel, titanium, rikyū grey | fractal, holon theory |
| 1994, Kibi-cho City Hall, Kibi Dome, Japan | ● | ● | ● | ○ | ceramic tile | - |
| 1996, Fukui City Museum of Art, Japan | | ◯ | ● | ● | rikyū grey | fractal, curtain wall |
| 1997, Shiga Kogen Roman Art Museum, Japan | | ◯ | ● | | concrete, ceramic tile, rikyū grey | - |
| 1999, Amber Hall, Japan | ◯ | ◯ | ● | | concrete, titanium, rikyū grey | fractal |



Fig.6 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L)

Fig.7 Ehime Prefectural Museum of General Science(R)

로 되어있다. 강당의 벽과 문은 물론 카운터나 문손잡

이 등과 같은 상세에도 프랙털 기하학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전시동 벽면에는 티타늄 판이 표면의 장식처럼 삽입된 철근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 연못바닥에는 발광체를 내장한 강화유리가 있으며, 리큐 그레이라는 색상이 전반적으로 건물전체에 사용되었다.

3-3. 키쇼 쿠로가와 건축의 표현특성 종합

“역사는 상징과 부호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작은 조각으로 건축물 속에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쿠로가와는 말했다. 그는 스승인 단케의 목할법(木割法)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기보다는 불교사상에 뿌리를 둔 일본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그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의 패러다임과 20세기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반영하는 3개의 핵심 개념에 매체로서의 다양한 부속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①메타볼리즘에는 성장, 변화, 세포의 원리, 신경조직의 이미지, 매트릭스 ②메타몰포시스에는 적용, 변화, 신경조직, 불명확성, 성(聖)스러움, 관계 ③심바이오시스에는 통시성, 동시성, 일본의 미학, 관계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부속 개념들이 건축에 적용될 때 쓰이는 중요 이론으로 ①메타볼리즘에는 순환, 변화, 해체, 일시성, 세포, 캡슐, 미디어, 매트릭스, 네트워크, 거리, 복도, 개방된 공간 ②메타몰포시스에는 중간영역, 애매성, 양의성, 다의성, 세포막, 세포핵, 상호침투, 초(hyper)공간, 그리드(grid), 입구(gate), 아트리움, 무대 ③심바이오시스에는 유전자, 유전방식, 세포질, 정체성, 장소성, 전통, 기억, 시(詩), 불명확성, 추상, 함축, 관계, 리즘, 심상(心象), 우주 등이 있다.

따라서 쿠로가와와 건축은 불교철학과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건축표현이 의도되었지만, 건축이라는 제약이 갖는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축개념과 표현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을 갖고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쿠로가와와 복잡한 개념체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서의 건축적 표현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구분 즉, ‘형태’ ‘재료와 색상’ ‘구조와 기술’로 그 특성을 분류해볼 수 있다.

쿠로가와와의 실현된 작품 중 대표적인 건축물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개념별로 분류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요 작품은 ①형태(사각형, 원형, 삼각형, 기타) ②재료(일반 재료, 금속, 세라믹, 기타)와 색상(리큐 그레이, 흰색, 기타) ③구조 및 기술(캡슐, 프레임, 프랙털, 커튼월, 기타) 등의 요소들로 강·중·약의 3단계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로가와와의 건축에서 사용된 형태는 사각형이 78.9%로 가장 많고, 원형, 삼각형, 기타 순으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재료는 일반재료가 50.0%로 가장 많고, 금속, 세라믹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기타가 60.5%로 가장 많고, 리큐 그레이가 그 다음으로 사용되었다. 구조 및 기술에서는 커튼월이 26.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프레임과 프랙털, 캡슐, 기타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개의 분석요소 별로 세부항목의 평균 합계가 100%를 넘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러 ‘형태’ ‘재료와 색상’ ‘구조 및 기술’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Tab. 5] 와 같다.

Tab 5. The Synthetical Diagram of Architectural Expression Analysis in Three Concepts by Form, Material & Color, Structure & Technique

| | Analytic Elements | Metabolism | Metamorphosis | Symbiosis | Average |
|-----------------------|-------------------|------------|---------------|-----------|---------|
| Form | rectangle | 72.7 % | 100.0 % | 76.1 % | 78.9 % |
| | triangle | 18.1 % | - | 61.9 % | 39.4 % |
| | circle | 45.4 % | 16.6 % | 80.9 % | 60.5 % |
| | the rest | - | 33.3 % | 9.5 % | 10.5 % |
| Material & Color | ceramic | - | 16.6 % | 9.5 % | 7.8 % |
| | metal | 45.4 % | 50.0 % | 42.8 % | 44.7 % |
| | general | 54.5 % | 50.0 % | 47.6 % | 50.0 % |
| | rikyu grey | 18.1 % | 50.0 % | 47.6 % | 39.4 % |
| the rest | 81.8 % | 50.0 % | 52.3 % | 60.5 % | |
| Structure & Technique | capsule | 27.2 % | - | - | 7.8 % |
| | frame | - | 50.0 % | 4.7 % | 10.5 % |
| | fractal | - | - | 19.0 % | 10.5 % |
| | curtain wall | - | 50.0 % | 33.3 % | 26.3 % |
| | the rest | 27.2 % | - | - | 5.2 % |

4. 맺음말

쿠로가와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중의 한 명이자, 실무건축가로서 흔치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다. 건축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인 20대부터 자신의 건축개념 및 이론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그는, 건축가인 부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한 건축과 일본 건축계의 중심인물이었던 단케로부터의 건축적 영향, 중등학교 시절부터의 불교와 인도철학에 대한 학습과 영향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번영에서 비롯된 일본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축적 개념과 디자인 논리를 광범위한 지식을 통해 구축해왔다. 쿠로가와가 저술한 『CIAM 붕괴이후 현대 건축의 창조』란 책을 보면, 그가 근대건축 이후 세계 건축의 상황과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대책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집착해 볼 수 있다.

쿠로가와와 건축개념에는 불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의 원리’와 ‘일본 문화’라는 두개의 주제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는데, 크게 메타볼리즘, 메타몰포시스 그리고 심바이오시스로 대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요 개념에 변화하는 과정적 단계의 매체로 작용하는 이론인 중간영역, 애매성, 다의성 등이 있는데, 메타몰포시스의 매체로서 사용되며 심바이오시스를 구현시킨다. 메타볼리즘은 시작부터 메타몰포시스와 심바이오시스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심바이오시스는 메타볼리즘과 메타몰포시스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개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메타몰포시스는 메타볼리즘에서 심바이오시스로 변화되는 단계의 과정에서 매체의 개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그의 건축적 개념과 작품의 디자인 논리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많은 관련 사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인 건축의 우수성에 대한 미화가 다소 지나친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서구중심적인 사상과 그것의 결과물 중 하나인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그가 반대한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일본중심주의를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는 격이다. 둘째, 너무나 방대한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축개념에 도입한 까닭에 개념의 위계나 순서가 없어 핵심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쿠로가와와 최종적인 건축적 목적이 시간과 장소의 공생 즉, 심바이오시스인데, 통시성(시간의 공생)과 동시성(장소의 공생)의 원리로서 최초의 개념인 메타볼리즘을 설명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셋째, 핵심적인 3개의 개념이 리즘과 같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명확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런 점이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것은 존슨(P. Johnson)이 “디자인은 좋지만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또 다른 박사학위 건축가인 아이젠만(P. Eisenman)에 대해 말한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상기와 같은 쿠로가와와 건축개념과 그것의 디자인 논리는 한국의 건축계가 ‘한국성의 세계화’라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고유의 문화와 전통, 그것의 미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그것을 상당히 공들여서 다듬은 미화(美化)에 대한 논리이다. 둘째, 대표적인 전통건축물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세계적 건축의 흐름과 결부시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

게 변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논리구축을 위해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관련분야의 이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논증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가 수십 년 간에 걸쳐 확대, 강화시키고 주장해온 그의 주요 개념과 이론이 자신의 작품에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작품분석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분명치 않다. 물론 건축이 갖고 있는 제한적 특성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론지향적인 다른 건축가들의 경우와 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삶의 원리’와 ‘일본문화’로부터 비롯된 쿠로가와와 건축개념은 한 지역의 문화·전통·관습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地域主義),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조류(潮流)나 사조(思潮), 과학·기술적 성과와 변화된 시대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공생(共生)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실로 총괄적인 개념의 건축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느 건축가들의 단조롭거나 편향된 건축개념이나 목적과는 다르며,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건축 그 자체의 특성에 부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쿠로가와와 건축개념과 이론들이 주관적인 관점과 논리의 비약이 있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그의 건축개념 체계와 특성을 고찰해 본 것은 한국 건축계의 방향설정에 대한 대안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1. Dirk Meyhofer,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Taschen, 1994
2. Kisho Kurokawa, 『Architecture of the Street -Towards Intermediate Space-』, Tokyo, 1983
3. 『Kisho Kurokawa, From Metabolism to Symbiosis』, Academy Editions, St. Martin's Press, 1992
4. Editorial Staff, 『Kisho Kurokawa -Selected and Current Works-』, The Images Publishing Group Pty Ltd, 1995
5. The Japan Architect, 『Kisho Kurokawa』, Shinkenchiku-Sha, Tokyo, 1995-2

Received (10.14.2014)

Revised (12.30.2014)

Accepted (2.15.2015)